

2015-06 책임연구보고서

# 노인 사기범죄 피해 분석과 대응방안

유지웅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목 차

<b>I . 서론</b> .....	<b>1</b>
1. 문제의식 .....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b>II . 이론적 논의</b> .....	<b>6</b>
1. 노인의 연령기준 .....	6
2. 노인 사기범죄 피해 영향요인 .....	7
3. 선행연구 검토 .....	9
<b>III . 노인 사기범죄 피해분석</b> .....	<b>11</b>
1. 공식 범죄통계 분석 .....	11
가. 추이분석 방법과 통계자료의 문제 .....	11
나. 노인 범죄피해 발생추이 .....	14
다. 노인 사기 피해 발생추이 비교 .....	19
라. 노인 절도와 사기 피해 발생추이 비교 .....	22
2.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 분석 .....	24
가. 노인실태조사 범죄피해경험률 조사항목 .....	24
나. 조사시기별 노인 범죄피해경험률 비교 .....	26
다. 지역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	27
라. 성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	28
마.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	29

<b>IV. 노인 사기범죄 피해 기사 분석</b> .....	<b>33</b>
1. 자료와 분석방법 .....	33
2. 분석결과 .....	34
3. 한계와 시사점 .....	42
<b>V. 제언</b> .....	<b>44</b>
1. 사기범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44
2. 범죄통계상 피해자 정보 구체화 및 미분류 사건 최소화 .....	45
3. 범죄피해 관련 지표 활용 및 맞춤형 대응 .....	46
4. 지역사회 노인 보호자원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	47
5. 노인 사기범 집중단속활동 지속 추진 .....	48
6. 노인 독거가구 보호활동 강화 .....	49
7. 사기범죄 피해 예방활동 연계자 역할 .....	50
<b>VI. 결론</b> .....	<b>51</b>
<b>참고문헌</b> .....	<b>54</b>

## 표 목 차

<표 1> 연도별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	12
<표 2>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	14
<표 3> 노인 사기범죄 피해 추이 .....	19
<표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발생건수와 발생비 .....	22
<표 5> 조사시기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	26
<표 6> 지역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	27
<표 7> 성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	28
<표 8> 가구형태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	29
<표 9> 교육수준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	30
<표 10> 연도별 분석대상 기사건수 .....	34
<표 11> 피해자 수 .....	35
<표 12> 사건 발생지역 .....	36
<표 13> 사기 유형 .....	37
<표 14> 물건판매사기 판매대상 물건 .....	38
<표 15> 투자사기 유형 .....	39
<표 16> 연도별 사기유형 .....	39
<표 17> 가해자 연령대별 사기유형 .....	40
<표 18> 가해자 연령대별 투자사기 유형 .....	41
<표 19> 지역별 사기피해유형 .....	41

## 그림 목 차

<그림 1>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 추이(2000~2013년) .....	15
<그림 2>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2000~2013) .....	17
<그림 3> 전체 대비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 .....	18
<그림 4>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비 추이 .....	21
<그림 5> 노인 절도와 사기피해 발생비 추이 .....	23

# I. 서론

## 1. 문제의식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보장되어 온 노년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가난한 노인들,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질병이 전부가 아니다. 노인은 범죄 피해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노인의 홍보관 사기피해, 보이싱피싱 피해 등은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형태이다.

사기범죄 피해는 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기범죄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가족 안에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할 위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빈곤해질 위험이 있다. 사기범죄 피해는 노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위험이 있다.<sup>1)</sup> 형사사법기관에서 노인 사기범죄 피해에 주목해야 하는 이

1) 최인섭·이순래·조균석,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2006, 103쪽; 황지태·노성호, 범죄피해자

유가 된다.

노인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한다.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분석과 진단의 기초 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문제의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노인 사기범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언급은 많지만,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범죄피해 추이와 관련한 해석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뤄지거나 현실을 과장하거나 오도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노인 범죄피해의 경우, 일부 해석은 비교 대상 연도의 범죄피해 발생건수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해석하거나 때로는 데이터가 갖는 집계상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해석하기도 한다.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노인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야기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범죄 피해분석과 그러한 분석에 기초한 대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와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성(지역별, 성별, 가구형태별, 연령별)을 분석하고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인 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책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2010, 99-100쪽; 조성호,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 피해경험 및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5(2), 2008, 206쪽.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추이와 특징에 관한 분석으로서, 공식 범죄통계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추이 분석,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경험을 조사결과 2차분석, 그리고 최근 언론에 기사화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 사건 분석을 통해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추이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00년 이후의 공식 범죄통계 분석을 통한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 분석
- 2)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경험을 조사 2차분석
- 3) 최근 언론에 기사화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 사건 분석
- 4) 노인 사기범죄 피해에 대응한 경찰의 대책 제언

이 연구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 추이 분석을 위하여 공식 범죄통계 분석을 하고 있는 한편, 노인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에 대한 2차 분석, 그리고 언론 기사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공식 범죄통계 분석 대상은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 통계자료이고,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결과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 경험 조사 항목(재산범죄, 사기성물건판매, 보이스피싱)이다. 언론기사 분석 자료는 주요 일간지, 방송, 전문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이 연구에서의 언론기사 분석은 노인범죄피해 경험률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보완적 성격

을 띤 것으로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을 자료화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로 그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자료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는 국가기관에서 범죄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집계한 통계이다.<sup>2)</sup> 공식범죄통계는 일정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 상황을 분석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로서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통계<sup>4)</sup>,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sup>5)</sup>, 사법연감, 범죄백서 등이 있다.

공식범죄통계는 대표성과 공신력이 높은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식범죄통계는 그 자체의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로,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를 반영하지 못한다.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를 토대로 작성된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크게 의존한다. 문제는 범죄 피해를 입고서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사법기관에 인식되지 않는 범죄, 곧 암수범죄는 모두 공식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둘째로,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단속의지에 직접적인 영

2) 공식범죄통계를 집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이 있다.

3) 광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66쪽.

4)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통계』(2007년부터 『범죄통계』로 명칭 변경)은 경찰에서 연간 처리한 범죄사건을 집계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취급한 범죄사건의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종합하여 집계한 것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산림청, 항만청, 관세청)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하거나 진산 입력한 3종의 범죄통계를 토대로 작성된다. 이 통계에는 범죄의 발생과 검거현황, 범죄 발생의 시간과 발생장소 등의 일반적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 여성이나 전과자 등의 범죄자별 범죄분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향을 받는다.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면 그 기간의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한다. 특별 음주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렇듯 공식 범죄통계는 실제 그 사회의 범죄발생 실태와 다르게 형사사법기관의 단속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sup>6)</sup>

공식범죄통계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료(Crime victimization data)가 이용된다. 범죄피해자료는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그 응답을 통해 수집한 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 범죄피해를 입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밝힘으로써 얻어진 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암수범죄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범죄현상 연구에서 범죄피해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범죄피해자료가 갖는 이러한 장점 때문이다.<sup>7)</sup>

이 연구에서 공식 범죄통계 자료 분석과 함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에 분석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공식 범죄통계 자료와 범죄피해자료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려는 것이다.

6) 그밖에도 공식범죄통계는 범죄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다. 범죄를 정의 및 분류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범죄통계는 정부 정책 및 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한 범죄통계 집계방식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료를 통해서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은 조사표 항목을 법률적 범죄구분에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범죄실태를 파악하고 암수범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료와 공식범죄통계자료의 범죄구분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료에서 공식범죄통계에서와 같은 세분화된 범죄구분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기억의 한계로 범죄피해경험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아 잘못된 응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노인의 연령기준

노인 범죄피해를 다루는 연구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주제는 범죄 피해 대상인 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학에서 노인 범죄는 소년 범죄와 더불어 연령을 기준으로 한 범죄자 분류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따라 노인범죄 또는 노인범죄피해의 대상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인의 개념 역시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연령층을 지칭한다. 사회 통념상 노인의 연령은 육체적으로 노화현상을 겪는 나이,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 현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를 가리킨다. 바로 그 노화와 은퇴의 ‘나이’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한다. 과거에는 육체적 노화와 사회적 지위 역할의 축소가 뚜렷한 나이를 60세로 보았지만, 의료 기술 발전과 더불어 노화가 지연되면서 65세를 노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노인 연령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인 관련 법규에서도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데,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르며, 한 나라 내에서도 노인 관련 법규의 성격에 따라서 나이의 기준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은 65세 이상, 사회보장 혜택은 62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공주택보조금은 60세 이상, 직업훈련지원은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sup>8)</sup>

8)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7호, 426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의 연령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에 의거하여 65세가 노인 연령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법에서는 분야별로 다른 ‘고령’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연령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은 만 61세 이상,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으로 고령 기준이 적용된다.

사회통념상으로는나 관련법규의 연령기준상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는 오랫동안 만 60세를 연령층 분류 기준으로 집계해 오고 있다. 공식 범죄통계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범죄통계 연령층 구분 기준에 따라 만 60세를 노인 연령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노인은 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가리킨다. 단지 이 연구의 제3장 제2절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에서는 조사주체가 노인 연령기준을 65세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형사사법기관에서 노인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범죄의 처벌을 위한 적용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sup>9)</sup>

## 2. 노인 사기범죄 피해 영향요인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의 제시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Approach)은 노인 범죄피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 틀을 제공한다. 일찍이 코헨과 펠슨은 범죄율 추이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일상활동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의 특징은 범죄자로서의 ‘개인의 특성’보다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 있다. 이 이론에서 코헨과 펠슨은 대개의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의 근접성’, ‘적당한 타겟’, ‘감시인의 부재’가 겹치는 상황이 조성될 때 일

9) 이영란,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2011, 191쪽.

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0)</sup>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보호망이나 감시인이 부재한 상황과 범죄자의 ‘적당한 타겟’이 될 수 있는 노년기의 특성이 겹쳐져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된다.<sup>11)</sup>

허경미(2006)는 이 이론에 근거하여 노인 범죄피해 원인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인의 재산범죄 피해는 ‘동기화된 범죄자의 근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폭력범죄 피해는 ‘동기화된 범죄자의 근접성’이 주요 요인이지만, ‘적당한 타겟’(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목표의 존재)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2)</sup> 노인에게는 범죄자들이 ‘적당한 타겟’으로 판단할 만한 ‘취약성’이 있다.

노인의 범죄 피해 취약성은 노인 생리적 특성과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노화는 지적 능력의 저하, 특별히 분별력과 판단력의 저하를 수반한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소비자와 비교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뒤떨어지는 취약한 소비자층이다.

노인들의 범죄 피해 취약성은 사회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노인이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배경에는 가족이나 사회와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 육체적 질병, 사회적 고독감, 역할 상실

10) Cohen and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No. 4 (Aug., 1979), pp. 588-608

11) 펠슨(Felson)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개인의 활동들이 범죄 피해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개인은 범죄 피해를 덜 당할 것이고, 잠재적 가해자의 접근으로부터 덜 노출되어 있으면, 범죄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목표물로서의 매력을 줄이는 것도 범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범죄자들이 노리는 개인의 자산 관련 정보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텔레마켓팅 전화나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잦으면 더 큰 사기 피해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사기범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Felson & Boba, *Crime and everyday Life*, Thousand Oaks, CA:SAGE, 2010; Mears et al., Efforts to Reduce Consumer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The Effect of Information Access on Program Awareness and Contact, *Crime and Delinquency*, 1-25, 2014, p.4)

12) 허경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006, 294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중첩되어 일어나면서 노인은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 3.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노인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보다는 피해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이 학계의 연구도 피해자로서의 노인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범죄 피해 두려움에 관한 주제도 그러하다. 노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여러 연구들 가운데, 이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몇 편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노인의 범죄 피해에 주목하는 연구는 이건중·전영실의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1995)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5~1992년까지의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여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 추세를 분석하고 있으며, 약 200명의 노인범죄자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하여 노인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를 행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허경미(2004)의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1995~2001년 기간 동안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범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허경미는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기와 절도범죄 피해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경미(2006)의 다른 연구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피해와 폭력피해별로 범죄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노인 재산범죄 피해에는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폭력범죄 피해에서는 범죄대상자의 매력성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노인 범죄피해 예방대책으로서 범죄자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적 정화노력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지난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외(2008)의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는 지난 1995년의 이건중·전영실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노인범죄와 범죄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사보고서로서,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 범죄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서 다단계층화표집 방법에 기반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건중·전영실(1995)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표집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는 노인 범죄피해의 유형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노인의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범죄와 범죄피해를 함께 다루거나 범죄 피해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도 범죄 피해 전반을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연구는 특별히 노인의 사기범죄 피해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상의 시사점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3) 허경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294면.

### Ⅲ. 노인 사기범죄 피해분석

#### 1. 공식 범죄통계 분석

##### 가. 추이분석 방법과 통계자료의 문제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은 일정 기간의 범죄피해 발생빈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범죄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이 변화를 통해서 범죄 피해 상황의 변화를 해석한다. 그런데 단순히 범죄피해 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것은 인구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방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구변수를 고려한 객관적 비교가 요구되는 때에는 단순히 발생건수보다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혹은 발생비) 산출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범죄피해 분석자료로 삼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는 범죄 피해자 연령 통계에서 미상 및 불상처리, 즉 연령 미분류 건수가 『범죄통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소년, 여성, 노인 등 특정 계층의 범죄(혹은 범죄피해)를 분석하는 데 더욱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으로 처리된 건수가 예외적으로 많은 해가 있어서 추이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표 1>은 지난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연도별 범죄피해 발생건수,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 피해자 연령 불상처리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도별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연도	범죄피해 발생건수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	피해자연령 불상건수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 (교정)
2005	983,214	76,176	35,725	76,176
2006	1,050,066	87,536	18,581	87,536
2007	1,122,607	95,178	8,006	95,178
2008	1,218,164	110,533	10,066	110,533
2009	1,275,417	122,548	11,706	122,548
2010	1,223,435	106,308	153,800	121,534
2011	1,297,898	77,779	447,773	118,526
2012	1,392,284	128,455	18,924	128,455
2013	1,337,563	131,258	6,214	131,25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14) 재구성

위 <표 1>은 전체 범죄피해 발생건수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이유는 그 두 해 『범죄분석』 통계상 피해자 연령 불상처리 건수, 즉 미분류 건수가 예외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범죄분석』 통계상 피해자 연령 불상처리 건수는 만 건 안팎이었는데, 2010년에는 피해자 연령 불상처리 건수는 형법범, 특별법범을 모두 포함하여 153,800건(6.8%)이고, 2011년에는 피해자 연령 불상처리 건수는 447,773건(47.5%)에 이른다. 2011년에 피해자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불상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 두 해 동안 피해자 연령 불상 처리 건수가 이렇듯 많으

로 이 두 해에 특정 연령대 피해자 발생건수는 예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소년, 여성 범죄피해 발생건수도 마찬가지이다. 『범죄분석』 통계에 따라서 소년, 여성, 노인 등 특정 연령대 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 두 해의 범죄 피해 발생건수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2011년과 2013년의 노인범죄(소년,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 발생건수를 단순 비교하여 그 해 동안 노인 범죄피해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범죄 피해 발생건수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거니와 왜곡된 통계를 교정하지 않은 채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 통계를 교정한 별도의 자료를 재구성했다. <표1>에서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교정)이 그것이다.<sup>14)</sup> 교정 방법은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불상 처리된 피해 발생건수를 연령대별 피해발생건수 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불상으로 처리된 건수가 각 연령대별로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연령대별 피해 발생건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연령층의 범죄 피해발생건수 구성비는 평균 9%대이다. 이렇게 하여 2010년과 2011년 각각의 노인 범죄 피해 발생건수 교정치는 교정되기 전의 수치에 약 9% 가량을 더한 121,534건과 118,526건이다. 이 두 해의 노인 범죄 피해 발생건수 교정 결과는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저하다.

14)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연령불상건수가 2010년, 2011년 외에 다른 해에도 1~2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지만,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처럼 발생추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 피해 발생건수만을 교정하였다.

## 나. 노인 범죄피해 발생추이

이 절과 다음 절에서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살피기 전에 노인 범죄피해 발생 추이와 노인재산범죄 발생추이를 살핀다. 노인 범죄 피해 발생 추이의 큰 그림 속에서 본론적으로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살피려는 의도이다.

〈표 2〉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범죄피해발 생건수	추계인구	범죄피해 발생비	노인범죄피 해 발생건수 (교정)	노인추계 인구	범죄피해 발생비 (교정)
2000	727,748	47,008,111	1,548	37,945	4,831,531	785
2001	733,164	47,357,362	1,548	42,888	5,038,400	851
2002	650,541	47,622,179	1,366	42,466	5,265,883	806
2003	744,243	47,859,311	1,555	45,156	5,504,181	820
2004	991,896	48,039,415	2,065	67,805	5,722,086	1,185
2005	983,214	48,138,077	2,042	76,176	5,920,555	1,287
2006	1,050,066	48,371,946	2,171	87,536	6,126,170	1,429
2007	1,122,607	48,597,652	2,310	95,178	6,350,219	1,499
2008	1,218,164	48,948,698	2,489	110,533	6,616,090	1,671
2009	1,275,417	49,182,038	2,593	122,548	6,899,272	1,776
2010	1,223,435	49,410,366	2,476	106,308 (121,534)	7,186,129	1,479 (1,691)
2011	1,297,898	49,779,440	2,607	77,779 (118,526)	7,457,820	1,043 (1,589)
2012	1,392,284	50,004,441	2,784	128,455	7,737,693	1,660
2013	1,337,563	50,219,669	2,663	131,258	8,033,881	1,63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14) 재구성

주1) 범죄피해 발생비: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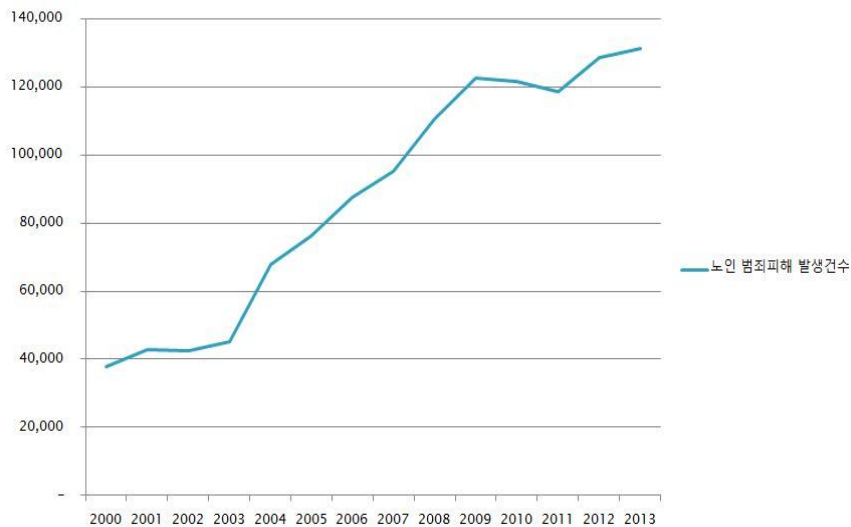
주2) 노인추계인구는 통계청 61세 이상 장래추계인구 자료임.

주3) 괄호 수치는 해당연도 범죄피해 연령 불상수치를 연령대별 구성비에 따라 조정  
배정한 교정수치임.

분석대상 통계자료 기간은 지난 2000년부터 『범죄분석』 통계가 생산된 가장 최근 해인 2013년까지이다. 2000년 이후 약 15년 동안의 노인 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살피는 것이다. 2000년 통계부터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림1><그림2>에서도 나타나듯이 2003년 이후의 추세상의 큰 변곡점을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표2>는 전체 범죄피해 발생건수와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범죄피해 발생비)를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 <표2>에 기초한 <그림1>,<그림2>을 통해서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파악한 추이와 범죄피해 발생비로 파악한 추이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1>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 추이(2000~2013년)



<그림 1>은 <표2>상의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교정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추이는 이후 2009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2년 이후에도 상승

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노인 범죄피해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 유형별 분석과 제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단지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와의 비교를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노인 범죄피해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122,548건에서 2013년 131,258건으로 1만건 가까이 증가하여 범죄피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2>에서 보듯이, 노인 인구 증가변수를 통제한 범죄피해 발생비(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본다면, 이미 2009년에 노인 인구 10만명당 1,776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 발생비가 각각 1,660명, 1,634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노인범죄피해 발생건수로 보면, 최근까지 노인범죄피해는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치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피해자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 것이고, 이러한 인구증가 변수를 배제한 발생비로 비교해 보면, 2009년 이후 노인 범죄피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2>의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2>는 그 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림2>에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그래프의 상승추세는 <그림1>과 비교했을 때 더욱 완만하고, 더욱 중요한 점은 2009년 이후의 추세 그림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범죄피해 발생건수 추이를 도표화한 <그림1>에서는 2009년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를 도표화한 <그림2>에서는 2009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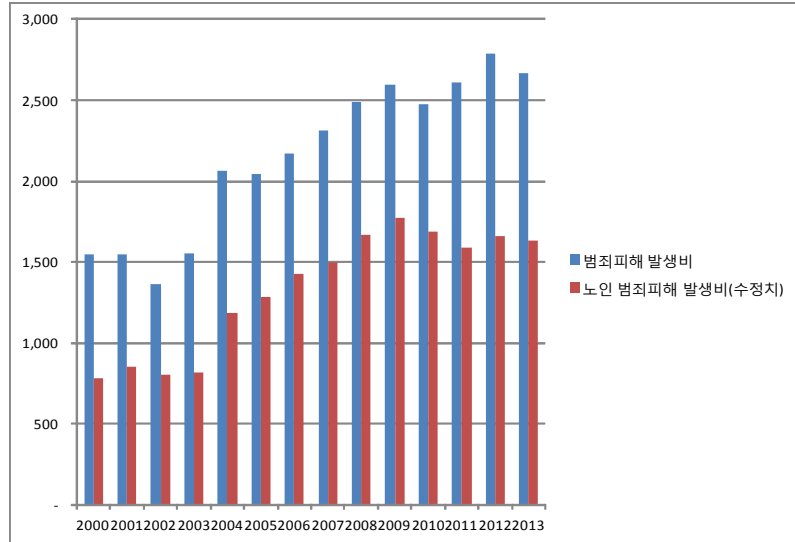


주1) 범죄피해 발생비는 노인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주2) 그림상의 파란색 차트는 2010년과 2011년 불상처리된 사건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빨간색 차트는 불상처리된 사건수를 피해자 연령층별 구성비에 따라 조정 배정한 교정치임.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를 나타낸 <그림2>를 통해 볼 때, 노인 범죄피해는 2009년에 최고점을 형성했고 이후 최근 2013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피해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전체 대비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



주1) 범죄피해 발생비: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는 전체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와 비교해 볼 때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3〉은 전체 범죄피해 발생비와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범죄피해 발생비는 지난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다가 2012년에 최고점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는 전술한 바대로 2009년에 최고점을 형성한 후 낮아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전체 범죄피해는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보든지 범죄피해 발생비로 보든지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반면, 노인 범죄피해는 단순히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볼 때에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증가 변수를 통제한 범죄피해 발생비로 살펴보면, 2003년 이후의 급증 추세는 2009년을 변곡점으로 삼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노인 사기 피해 발생추이 비교

노인 범죄피해 유형 가운데 사기피해 발생건수와 발생비를 전체 사기 피해와 비교하면 <표3>과 같다. 지난 2000년 사기피해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195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492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103명에서 282명으로 2.7배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노인 사기피해 증가폭은 전체 사기피해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 노인 사기범죄 피해 추이

	사기 피해 발생건수	사기 피해 발생비(A)	노인 사기피해 발생건수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 (B)	(B/A*100)
2000	91,432	194.5	4,992	103.3	53.1
2001	97,411	205.7	5,526	109.7	53.3
2002	102,825	215.9	5,721	108.6	50.3
2003	136,479	285.2	6,971	126.6	44.4
2004	202,318	421.2	13,777	240.8	57.2
2005	172,868	359.1	13,218	223.3	62.2
2006	176,469	364.8	14,316	233.7	64.1
2007	164,517	338.5	13,784	217.1	64.1
2008	179,584	366.9	18,078	273.2	74.5
2009	193,455	393.3	19,316	280.0	71.2
2010	181,064	366.4	18,886	262.8	71.7
2011	198,203	398.2	19,706	264.2	66.4
2012	219,246	438.5	19,806	256.0	58.4
2013	246,909	491.7	22,678	282.3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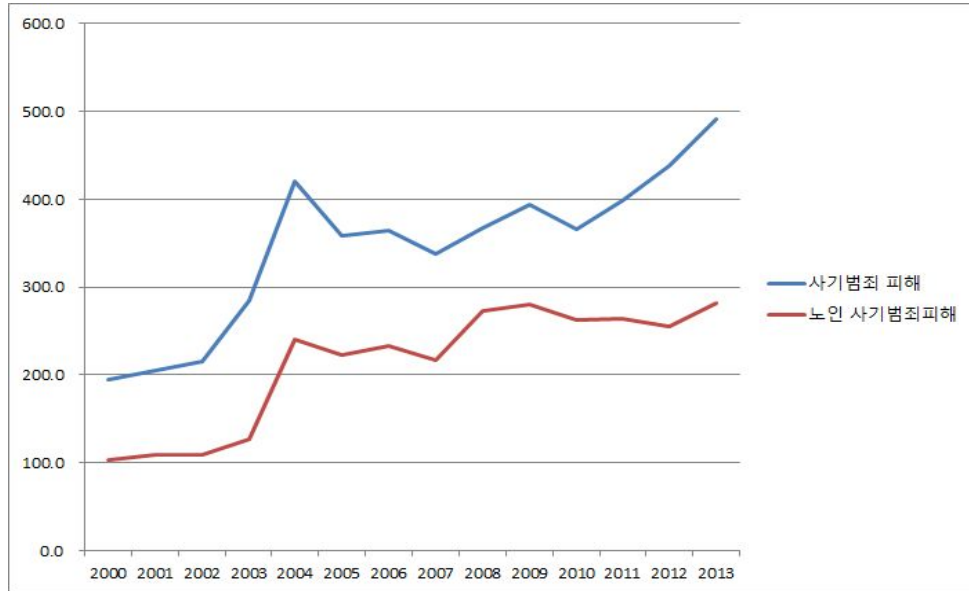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14) 재구성

주1) 2010년, 2011년 노인 사기피해 발생건수 및 발생비는 해당연도 범죄피해 연령 불상 수치를 연령대별 구성비에 따라 조정 배정한 교정수치임.

지난 2000년 전체 사기피해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195명일 때,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는 103명으로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 비율은 53.1% 수준이었는데, 2003년 44.4%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지난 2008년에는 74.5% 수준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8년을 즈음한 시기는 지난 2000년 이후 노인 사기피해가 전체 사기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2008년과 2009년은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가 인구 10만명당 280명에 육박하여 가장 높은 발생비를 나타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노인 사기피해는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가 전체 사기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3년에는 전체 사기피해의 57.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체 사기피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 수치는 2013년 인구 10만명당 282.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각각의 발생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lt;그림 4&gt;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비 추이



주1) 범죄피해 발생비는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지난 2000년 이후 2007년 사이 전체 사기피해 발생비와 노인 사기 피해 발생비는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사기피해와의 간격이 가장 근접한 시기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전체 사기피해 발생비는 급증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는 현상 유지 상태를 보이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가 전체 사기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전체 사기피해의 57% 수준으로 낮아졌다.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전체 사기피해 발생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전체 사기 피해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 사기피해는 현상 유지 상태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 사기 피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양호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 라. 노인 절도와 사기 피해 발생추이 비교

『범죄분석』의 범죄분류상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에 속한다. 재산범죄에는 사기 외에도 절도,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등이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재산범죄 유형은 절도와 사기이다. 이 절에서는 노인 절도 범죄피해와 사기 범죄피해를 비교한다.

<표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발생건수와 발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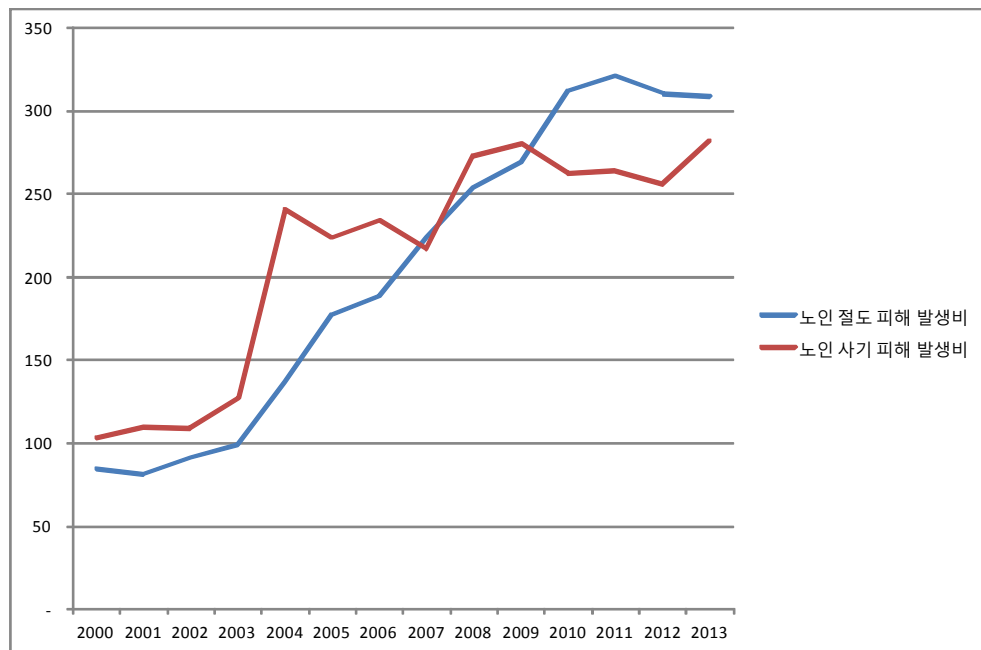
	노인 재산범죄 피해 발생건수	노인 절도피해 발생건수	노인 절도피해 발생비	노인 사기피해 발생건수	노인 사기피해 발생비	장물, 횡령,배임, 손괴 피해 발생건수
2000	10,514	4,070	84	4,992	103	1,452
2001	11,239	4,103	81	5,526	110	1,610
2002	12,020	4,795	91	5,721	109	1,504
2003	14,129	5,443	99	6,971	127	1,715
2004	24,940	7,808	136	13,777	241	3,355
2005	27,341	10,500	177	13,218	223	3,623
2006	30,851	11,561	189	14,316	234	4,974
2007	33,641	14,173	223	13,784	217	5,684
2008	41,089	16,795	254	18,078	273	6,216
2009	44,866	18,582	269	19,316	280	6,968
2010	48,951	20,338	312	18,886	263	9,727
2011	51,894	23,918	321	19,706	264	8,270
2012	53,802	24,017	310	19,806	256	9,979
2013	57,511	24,835	309	22,678	282	9,99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14) 재구성

주1) 2010년, 2011년 재산범죄(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피해 발생건수는 해당연도 범죄피해 연령 불상수치를 연령대별 구성비에 따라 조정 배정한 교정수치임.

<표4>은 노인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 피해 발생건수와 발생비를 나타낸 것이다. 재산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절도와 사기 피해 발생건수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노인 절도 피해는 지난 2000년 4,070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4,835건으로 6.1배 증가했고, 노인 사기 피해는 2000년 4,992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2,67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요인을 배제한 발생비로 보면, 노인 절도 피해 발생비는 2000년 인구10만명당 84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309건으로 3.6배 증가한 것이고, 노인 사기 피해 발생비는 2000년 인구 10만명당 103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8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지난 14년 동안 노인 절도와 사기 피해는 각각 3.6배와 2.7배 증가한 셈이다.

<그림 5> 노인 절도와 사기피해 발생비 추이



주1)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해 발생건수

<그림5>는 지난 2000년 이후 노인 절도와 사기피해 추이를 보여주는 데, 지난 2000년 이후 2009년까지만 하여도 노인 사기피해가 노인 절도 피해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의 시기에는 노인 절도피해가 사기피해를 앞서고 있다. 근래 들어 노인 사기피해보다 절도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절도와 사기피해 발생비 증가세로 볼 때에도 절도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노인 사기피해는 지난 2004년에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노인 절도피해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매해 증가세를 나타냈다. 노인 범죄피해(전체) 발생비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노인 절도와 사기피해는 그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다. 노인절도와 사기는 여전히 주목해야 할 범죄피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 분석

### 가. 노인실태조사 범죄피해경험률 조사항목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추이는 위에서 서술한 공식 범죄통계의 피해 발생건수 비교 방법 외에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국내에서 노인 사기범죄피해경험률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사기 피해경험률 조사항목이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실태조사는 지난 2007년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당시 개정된 노인복지법(제5조)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실태조사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 2011년

에 이어 2014년 세 번째 조사가 이뤄졌다.<sup>15)</sup>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한 가장 큰 규모의 조사라는 점과 3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짐으로써 노인실태의 변화 추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이다. 이 조사에 65세 이상 노인의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범죄피해 유형에는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등을 포함하고 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결과는 전술한 공식 범죄통계 분석과는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피해자 규모이다. 전자는 공식통계에 기초한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자 발생 추이인 반면, 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피해경험을 묻은 실태조사 결과로서 형사사법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 피해를 포함한다. 당연히 후자의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 규모는 전자의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범죄피해자 규모보다 크다.

둘째는 조사대상 연령의 차이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상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구분 기준은 60세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에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는 전국에서 표집한 65세 이상 노인 10,27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통계 집계 방식과 대상연령의 차이로 각각의 피해 발생규모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나 전자의 공식 범죄통계 분석 자료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결과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15) 노인실태조사는 2007년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1994년, 1998년, 2004년의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이다. 이 조사는 노인의 다각적 생활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 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있어서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피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

## 나. 조사시기별 노인 범죄피해경험을 비교

<표 5> 조사시기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범죄피해 경험률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2014년	0.6	0.1	0.3	0.2
2011년	1.2	0.1	1.2	0.3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473-474쪽;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 509쪽 재구성.

지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에서 재산범죄 피해경험률은 1.2%를 나타냈고, 노인 사기피해의 대표적 형태인 사기성 물건구매와 보이스피싱 피해경험률은 각각 1.2%, 0.3%로 조사되었다.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12명, 보이스피싱은 3명 가량 피해경험이 있었던 셈이다.<sup>16)</sup> 2014년 조사 결과는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이 0.3%,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이 0.2%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4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은 2011년 1.2%에서 2014년 0.3%로 감소했고, 보이스피

16) 국제적 비교를 위해, 지난 2011년 미국의 아리조나주와 플로리다 주(이 두 지역은 미국 내 노령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기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바를 인용하면, 이 두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기피해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약 14%가 지난 한 해 동안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8%를 나타냈다. 놀라운 사실은 조사대상자의 거의 60%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사기 시도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 사기형태는 허위경품 사기, 허위 기부 사기로 조사되었다(Kristy Holtfreter, Michael D. Reising, Daniel P. Mears, Scott E. Wolfe,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in a Consumer Contex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p. 8-10).

싱 피해경험율도 0.3%에서 0.2%로 감소했다. 3년의 조사시기 간격을 두고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은 2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은 65%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의 감소가 두드러진데, 이러한 피해경험을 감소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피해경험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식별해 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공식통계상 노인사기범죄 피해 발생추이에서 나타난 특징, 즉 지난 2008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노인 사기범죄 피해 추이로 볼 때,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일정한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전술한 분석 결과보다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노인사기 범죄 피해경험률이 하락했다는 것, 즉 노인사기범죄 피해가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요약하면, 노인 사기피해 발생 추이는 2008년 이후 공식 범죄통계상으로 분석하면, 등락을 반복하며 현상 유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2011년 이후 범죄피해 경험률 조사결과로 분석하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지역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표 6> 지역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범죄피해 경험률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지역	동부	0.7	0.1	0.3	0.2
	읍면부	0.4	0.0	0.3	0.1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509쪽 재구성.

범죄피해 경험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일반적이다. 위 <표 6>는 2014년 동 조사에서 지역별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을 나타낸 것인데, 농어촌지역(읍면부)보다 도시지역(동부)에서 더욱 높은 피해경험률을 나타냈다. 재산범죄는 도시지역(0.7%)이 농어촌지역(0.4%)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성 물건구매피해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보이스포싱은 도시지역(0.2%)이 농어촌지역(0.1%)보다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성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표 7> 성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범죄피해 경험률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성별	남성	0.6	0.1	0.2	0.3
	여성	0.6	0.1	0.4	0.1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509쪽 재구성.

범죄피해 경험률은 성별에서도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2014년 동 조사에서 성별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은 사기성 물건 구매와 보이스포싱 피해경험률에서 각각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노인남성(0.3%)은 노인여성(0.1%)에 비해서 보이스포싱 피해경험률이 3배가 높고,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률은 노인여성(0.4%)이 노인남성(0.2%)보다 2배가 높다.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에서 성별차이는 2011년 동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인남성과 여성의 피해경험률은 각각 0.6, 1.6%를 나타냈다. 3년의 격차를 두고 노인여성의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률은 1.6%에서 0.4%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노인여성의 사

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율은 1/4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 마.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범죄피해 경험률 비교

<표 8> 가구형태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범죄피해 경험률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2014	노인독거	0.9	0.1	0.4	0.0
	노인부부	0.5	0.0	0.2	0.3
	자녀동거	0.5	0.1	0.4	0.2
	기타	0.4	0.0	0.2	0.1
2011	노인독거	1.2	0.0	1.5	0.1
	노인부부	1.4	0.1	1.0	0.5
	자녀동거	0.8	0.0	1.4	0.1
	기타	1.0	0.0	0.4	0.2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473-474쪽;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509쪽 재구성.

동 조사에서 노인 가구형태별로 피해경험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차례의 조사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은 노인독거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은 노인부부가구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가구별 형태가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성을 보이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두 차례에 걸친 동 조사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이 더욱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노인독거가구는 연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한다.<sup>17)</sup> 즉,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 노인독거가

17) 이 조사에서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노인독거가구에서는 제1오분위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인부부 가구는 제3오분위가 28.0%로 가장 높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제5오분위가 48.6%에 달하는 등, 가구유형별로 가구소득의 분위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

구는 다른 가구형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이 낮다. 반면 사기성 물건구매 피해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노인 독거가구에서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이 높다는 것이다. 2011년 조사에서는 모든 가구형태 중에서 노인독거가구(1.5%)의 피해경험이 가장 높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자녀동거가구(0.4%)와 더불어 노인독거가구(0.4%)가 피해경험이 가장 높았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구형태별로 노인독거가구는 여전히 피해 위험이 높은 가구형태로서 관심이 요구된다.

〈표 9〉 교육수준별 노인(65세이상)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범죄피해 경험률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2014	무학(글자모름)	0.5	0.0	0.5	0.0
	무학(글자해독)	0.5	0.2	0.2	0.0
	초등학교	0.7	0.0	0.2	0.1
	중학교	0.7	0.1	0.5	0.1
	고등학교	0.7	0.0	0.5	0.1
	전문대학 이상	0.2	0.0	0.4	1.4
2011	무학(글자모름)	0.3	0.0	1.8	0.0
	무학(글자해독)	1.4	0.0	1.2	0.3
	초등학교	1.3	0.1	1.4	0.5
	중 고등학교	0.9	0.1	0.7	0.2
	전문대학 이상	2.6	0.0	0.7	0.4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473-474쪽;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509쪽 재구성.

다.(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108쪽) 가구소득은 제1오분위 754만원 이하, 제2오분위 754만원 초과~1,208만원 이하, 제3오분위 1,208만원 초과~1,946만원 이하, 제4오분위 1,946만원 초과~3,426만원 이하, 제5오분위 3,426만원 초과로 구분되었다(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102쪽).

동 조사에서 교육수준별 노인 범죄피해 경험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조사에서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서 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노인들의 범죄피해 경험률은 1.2%~1.8%로서, 중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피해경험률 0.7%과 비교해서 두 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에서 교육수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3년 사이에 교육수준을 고려한 예방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를 당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사기성 물건 판매 수법이 더욱 정교화 되어서 피해자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 사기 피해경험률은 지난 3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사기 유형별로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의 감소폭(1.2% → 0.3%)이 두드러진다.

둘째, 노인 사기피해 유형별로 최근(2014년 조사) 보이스포싱 피해는 농어촌지역(0.1%)보다 도시지역(0.2%)에서 높게 나타나고,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경험은 노인여성(0.4%)이 노인남성(0.2%)보다 두 배나 높다.

셋째, 가구형태별로 볼 때,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하는 노인독거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보이스포싱 피해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경찰의 대책과 관련하여,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가 노인독거가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구한다. 사기성 물건 판매 범죄자들은 소득이 낮은 노인독거가구를 구별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요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노인 사기범죄 피해대책에서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소득수준과 상관성이 있는 가구형태를 고려한 대책 수립은 가능하다. 노인의 사기성 물건구매 피해 예방 대책은 노인독거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은 노인부부가구에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IV. 노인 사기범죄 피해 기사 분석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식 범죄 통계 분석은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된 사건의 규모와 그 추이를 통해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 노인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 사기 피해경험률 조사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여 개인의 피해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통계 분석과 피해자 경험률 조사는 서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띤다.

한편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 기사분석은 공식 통계 분석과 피해자 경험률 조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노인 사기 피해 기사의 수적 규모는 언론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 이슈의 정도를 반영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정보보다는 노인 사기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언론 기사를 통한 분석은 공식통계 분석과 피해자 경험률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 1.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대상은 지난 3년(2013.1~2015.9) 동안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범죄 관련 기사들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일간신문을 비롯하여 방송통신, 경제신문, 인터넷 신문, 지역지, 매거진, 전문지에 실린 것들로서,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해 수집되었다. 주요 검색어는 “노인”, “사기”, “경찰”, “보이스피싱” 등이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언론매체마다 담고 있는 정보

의 양에 차이가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기사들이 비교되었다. 이 연구에서 언론기사 분석은 노인 사기범죄 사건의 발생연도별 특징,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 범죄 발생지역, 사기범죄 유형, 주요 사기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기사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있고, 가해자(혹은 혐의자)가 구속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론 기사 분석은 노인범죄피해 경험률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을 자료화하여 통계분석하였다.

## 2. 분석결과

이 분석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있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 관련 기사 22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분석대상 기사건수는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연도별 분석대상 기사건수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2013	75	33.5
2014	61	27.2
2015	88	39.3
합계	224	100.0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들은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사건의 일부이다. 해당 연도의 관련기사 건수가 그해 노인 사기범죄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사 건수는 노인 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일부분 반영한다. 언론보도의 특성상 노인 사기범

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해에는 관련기사 건수가 많다.

올해 2015년의 경우 기사검색 기간은 9월 말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사 건수는 근래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에 노인사기 범죄 관련 기사 건수 비중이 높은 원인은 경찰의 집중단속과 검거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15년 3월부터 금융사기, 중소기업 대상 사기, 노인대상 사기를 '3대 악성사기범'으로 규정하고<sup>18)</sup> 집중단속 활동을 벌였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그 어느 해보다 노인사기 범죄 검거건수가 많았는데, 이러한 영향이 언론보도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피해자 수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1-50명	105	49.1
51-100명	20	9.3
101-200명	19	8.9
201-500명	20	9.3
501-1000명	16	7.5
1000명 이상	34	15.9
합계	214	100.0
결측	10	
합계	224	

주) 피해자 수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노인인 사건의 총 피해자 수입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50명 이하인 경우(4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1,000명 이상(15.9%), 201~500명(9.3%), 101~200명(8.9%) 순이다. 노인 사기 피해 사건은

18) 경찰청 브리핑, “국민생활경제 보호 및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3대 악성사기범」 집중 단속 돌입”(2015년 3월).

대부분 피해자가 50명 이하인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도 1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 사기피해 유형으로 투자사기도 대표적인 유형을 차지하는데, 투자사기의 피해자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언론이 주목할 만한 대규모의 사기 사건에 노인들이 주요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표 12> 사건 발생지역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서울	56	25.2
부산	15	6.8
대구	8	3.6
인천	6	2.7
광주	2	.9
대전	15	6.8
울산	6	2.7
경기	43	19.4
강원	12	5.4
충북	2	.9
충남	17	7.7
전북	8	3.6
전남	10	4.5
경북	6	2.7
경남	9	4.1
제주	7	3.2
합계	222	100.0
결측	2	
합계	224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범죄 사건 발생지역은 서울(25.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19.4%), 충남(7.7%) 순이다.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노인 사기범죄들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서울의 비중이 높은 원

인에는 전국적 규모의 사기 사건의 경우 대표지역으로 서울을 지정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 충남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 관련 홍보관이 밀집해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13> 사기 유형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물건판매사기	109	48.7
전화금융사기	35	15.6
투자사기	54	24.1
기타 사기	26	11.6
합계	224	100.0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범죄 사건의 사기유형은 크게 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기타 사기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기 유형별로 물건판매사기(48.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투자사기(24.1%), 전화금융사기(15.6%) 순이다. 범죄 발생건수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이 있다.

&lt;표 14&gt; 물건판매사기 판매대상 물건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건강(기능,보조)식품	66	61.1
일반식품	21	19.4
약재	8	7.4
의료기기	6	5.6
장례용품	3	2.8
기타	4	3.7
합계	108	100.0
결측	116	
합계	224	

언론에 보도된 노인 물건판매사기 사건의 판매대상 물건은 건강(기능, 보조) 식품(61.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식품(19.4%), 약재(7.4%), 의료기기(5.6%) 순이다.<sup>19)</sup> 한편, 경찰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대상 사기성 판매사범 단속결과에 따르면, 총 285건 1326명을 검거했는데, 건강식품 판매가 230건(80.7%)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식품 37건(13%), 의료기기 14건(4.9%), 침구류 등 기타 4건(1.4%) 순이었다.<sup>20)</sup>

판매대상 물건들이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노후 질병관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 의존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최근 포브스 잡지에서 미국의 노인의 사기성 물건 구매의 대표적 형태로 ‘잡지 구독’을 든 것과 대조적이다.

19) 2013년 서울시는 경로당 50곳에서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관 사기 구매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홍보관 사기 구매 물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보조기기, 상조 건강보험상품 순으로 조사되었다.

20) 경찰청 보도자료, 어르신 기만하는 「건강식품 등 떴다방」 등 단속결과, 2014.12.

&lt;표 15&gt; 투자사기 유형

(단위: 건, %)

	빈도	유효 퍼센트
부동산	17	31.5
금융(이자,채권,주식)	9	16.7
각종 사업	25	46.3
기타	3	5.6
합계	54	100.0
결측	170	
합계	224	

언론에 보도된 노인 투자사기 유형으로는 각종 사업투자 사기(46.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투자 사기(31.5%), 금융투자(이자, 채권, 주식) 사기(16.7%) 순이다.

&lt;표 16&gt; 연도별 사기유형

(단위: 건, %)

	사기유형				전체
	물건판매사기	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기타 사기	
2013	38	8	21	8	75
2014	44	6	7	4	61
2015	27	21	26	14	88
전체	109	35	54	26	224

연도별로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사건 유형에서 주목되는 점은 2015년에 들어서 물건판매사기 관련 기사가 줄어든 반면, 전화금융사기와 투자사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5년에 들어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기사가 늘어난 것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제수사공조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로 가해자 검거 성공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

다.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지난 3년 동안의 기사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피해자만 드러난 사례들이 다수여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이 많았던 반면, 2015년에는 가해자가 검거된 사례들이 늘어남으로써 분석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를 비교해 볼 때, 노인 투자사기 관련 보도는 크게 늘어났다. 2014년에는 10건 미만이던 것이 2015년에는 9월까지 26건이 보도되었다. 부동산, 금융, 각종 사업 투자 유형 등에서 모두 증가한 상태이다.

<표 17> 가해자 연령대별 사기유형

(단위: 건, %)

	사기유형				전체
	물건 판매 사기	전화금융 사기	투자사기	기타사기	
20대	5	16	0	1	22
30대	20	12	9	4	45
가해자 연령대	40대	22	4	14	44
50대	39	1	25	9	74
60대	14	0	6	8	28
70대	3	0	0	0	3
전체	103	33	54	26	216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범죄 피해 유형별로 가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물건판매사기와 투자사기의 주요 가해자 연령대는 50대인 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가해자 연령대는 20대가 주류를 이룬다. 전화금융사기의 주범자들은 20~30대 조선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18> 가해자 연령대별 투자사기 유형

(단위: 건, %)

	투자사기 유형				전체
	부동산	금융(이자,채권,주식)	각종 사업	기타	
가해자 연령대					
30대	6	1	2	0	9
40대	4	2	6	2	14
50대	6	5	13	1	25
60대	1	1	4	0	6
전체	17	9	25	3	54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노인 대상 투자사기 범죄에서 금융투자 사기와 각종 사업투자 사기의 주범은 과반수 이상이 50대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사기에서는 30대, 40대, 50대에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표 19> 지역별 사기피해유형

(단위: 건, %)

	사기유형				전체
	물건 판매 사기	전화금융 사기	투자 사기	기타 사기	
지역					
서울	7	15	27	7	56
부산	8	1	5	1	15
대구	6	0	2	0	8
인천	4	1	0	1	6
광주	0	0	1	1	2
대전	11	0	3	1	15
울산	5	0	1	0	6
경기	24	8	8	3	43
강원	8	0	3	1	12
충북	1	0	0	1	2
충남	10	4	0	3	17
전북	6	0	0	2	8
전남	4	0	3	3	10
경북	3	2	0	1	6
경남	7	1	1	0	9
제주	5	1	0	1	7
전체	109	33	54	26	222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노인 대상 사기범죄 유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물건판매사기는 경기, 대전, 충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대전 충남지역의 경우 인삼 등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홍보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와 투자사기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관련 보도건수가 많다.

### 3. 한계와 시사점

노인 사기피해 언론기사 분석은 이미 노인 사기피해 사건으로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사례들 중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사례들을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은 공식 범죄통계나 피해자조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을 통해 노인 사기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 기사가 담고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경찰의 노인사기 피해 단속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 예로서 언론기사는 50대가 주요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공식적 범죄통계 상으로는 40대의 비중이 더 높다.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은 전체 모집단이 아닌 표집 집단의 성격을 띠는 까닭에 표집 주체인 언론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사분석은 노인 사기피해 실태를 일정 부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론 기사 분석은 공식 범죄통계 분석과 피해경험률 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인 사기 피해 추이를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언론에 보도된 노인 사기사건 유형에서 주목되는 점은 2015년에 들어서 물건판매사기 관련 기사가 줄어든 반면, 전화금융사기와 투자사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사기가 새로운 노인 사기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홍보

관을 통한 물건판매사기와 전화금융사기가 경찰을 비롯하여 관련기관의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수그러드는 경향을 나타내는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가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의 노인사기 피해 추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할 부담감이 점증하는 사회적 환경은 노인 대상 투자사기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을 높인다.

## V. 제언

### 1. 사기범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기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사기범죄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들의 활동공간은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기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사기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매체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날로 새로워지는 다양한 사기범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은퇴자협회'(AARP)에서 '사기 감시 네트워크'(Fraud Watch Network)를 운영하면서 미국 전역 각 지역별로 사기범죄 유형과 대처방법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등 사기범죄 취약계층의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사기 감시 네트워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날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에 대처하여 최근 미국 각 주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기범죄 유형과 예방에 관한 최근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제공하는데, 미국 각 주별로 최근 발생한 사기 유형과 예방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를 해당 범죄 전문가 및 사법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은퇴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기 감시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한 (가칭) '사기범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범죄 정보 네트워크' 운영은 각 지역 경찰청별로 해당 지역에서 최근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범죄 유형과

사례,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범죄지도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기범죄 정보 네트워크’ 운영주체는 사기범죄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유 축적하고 있는 경찰이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운영주체를 민간단체로 하고 경찰은 사기 범죄정보 제공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2. 범죄통계상 피해자 정보 구체화 및 미분류 사건 최소화

과학적인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는 범죄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이다. 범죄통계는 범죄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근래 범죄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연구자들은 범죄피해자 통계와 관련해서 공식통계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sup>21)</sup> 범죄피해자 성별 연령통계에서 피해자 연령 구분기준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식 범죄통계인 경찰의 『범죄통계』와 검찰의 『범죄분석』에서는 61세 이상으로 포괄 분류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여타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상의 문제를 가져온다.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 분류기준을 10세 간격에서 5세 간격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범죄통계에 피해자 연령 정보가 미분류되어 연령 불상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것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범죄통계 입력단계에서 가해자 피해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정보를 미분류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

21) 김은경 외,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강지현 외,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2, 37쪽.

다.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곧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 3. 범죄피해 관련 지표 활용 및 맞춤형 대응

공식적인 범죄(피해)통계가 실제로 발생한 범죄(피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특성상 사기범죄 피해사실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더욱 낮게 신고되는 경향이 있다.<sup>22)</sup>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의 단속활동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인 사기범죄 피해에 관한 보다 사실에 가까운 데이터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4년 노인 사기범죄 피해경험을 비교를 통해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식범죄 통계자료에 의거하더라도 최근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비 추이는 고점을 지나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수준이다. 언론에서 말하듯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노인 사기범죄 피해 대책은 객관적인 조사결과나 범죄피해 관련 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 과제로서 경찰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행하거나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범죄 혹은 범죄피해 관련 자료와 지표들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치안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사기 범죄 피해경험률 조사 분석 결과는 사기범죄 피해유형별로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노인 사기범죄 피해대

22) 이건중·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3-94 쪽; Kelly D. Johnson, *Financial Crimes Against the Elderly*,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No.20,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03, pp. 9-10.

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지역사회 노인 보호자원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물품판매사기는 대기업,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딴 홍보관을 설치하고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효도관광을 미끼로 공장을 견학시켜 고가의 건강식품, 도자기 등을 판매하거나,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물품판매사기 유형에 대한 단속활동은 몇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피의자들이 관련 법률인 방문판매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sup>23)</sup>외에도 불법 판매 현장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홍보관 운영자들이 출입자 대상을 선별 제한함으로써 단속요원들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단속활동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위촉받은 시니어 감시단을 사전에 현장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보관을 통한 물품판매사기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노인단체의 협력 필요성은 홍보관 단속활동을 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노인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노인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2014년 경찰청과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 이후 지방청 단위에서도 지역 노인단체와의 업무협약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23) 홍보관 영업은 현행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이나 일반식품 관련법으로 처벌되는데, 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예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성 물건판매와 관련하여 총 1,326명이 검거되었지만, 구속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구속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

노인단체 자원을 활용한 협력치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의 지역사회내의 노인 상담, 의료, 보호,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 사기범죄피해 등 다양한 노인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노인 사기범 집중단속활동 지속 추진

공식 범죄통계 분석에 따른 노인 범죄피해 발생비 추이는 지난 2003년 이후 2009년까지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가 2009년에 최고점을 형성했고 이후 최근 2013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 범죄 피해는 최근 몇 년 동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 재산범죄 피해 특히 노인 절도범죄와 사기범죄는 여전히 주목해야 할 범죄피해 유형이다. 노인 절도범죄 피해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근래 2년 동안 소폭 감소 내지 현상유지 상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동안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비보다 높아진 상태라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고,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2009년 이후 몇 년 동안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듯하다가 지난 2013년에 다시 증가한 상태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노인의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가족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기범죄 피해 자체보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올해 3대 악성사기범 근절대책에 노인사기범을 포함시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 사기범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 단속활동은 범죄피해 예방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인 보호활동이 될 것이다. 경찰의 노인사기범 단

속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6. 노인 독거가구 보호활동 강화

2015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가구와 고령 가구주 혼자서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sup>24)</sup> 연구자들은 독거가구 노인의 사회적 고립, 심리적 위축, 질병,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노인 안전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실제로 노인 독거가구의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데, 사기성 물건구매 피해 경험률은 다른 가구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홍준·정태인(2011) 등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과 비교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25)</sup> 노인 독거가구는 사회적 고립, 심리적 위축, 경제적 빈곤, 질병 등의 위험요인 외에도 사기범죄피해 위험요인도 중첩적으로 안고 있는 가구형태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노인안전보호대책과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찍이 독거노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노인 독거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 차원에서의 독거노인 보호활동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 2015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7.4%로서 2000년 3.5% 대비 2배 가량 늘어났으며,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쪽)

25) 유홍준·정태인, 한국노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제43권 제1호, 2011, 59쪽.

## 7. 사기범죄 피해 예방활동 연계자 역할

노인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일반적인 대책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기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대책을 홍보하는 예방교육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한 예방활동 방식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범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노인의 정보 취득력과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잠재적 사기 피해노인을 접촉할 기회가 많고 지역사회 노인관련기관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경찰이 직접 노인들의 활동공간을 찾아가는 방문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노인 의료기관, 노인복지기관, 노인요양기관, 상담기관, 노인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관련기관 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최근 사기범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노인자살, 노인학대 등 다양한 노인 안전 위험요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몇 가지 어두운 전망을 동반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비롯해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노인학대 등 부정적인 노인문제들이 뒤따른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노인문제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구한다. 사기범죄 피해에 노출된 노인이 이미 노인 문제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노인의 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 노인사기 범죄 피해 분석결과는 언론에서 단순히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하며 그 심각성을 말하는 것과는 달리, 개선되는 추세이거나 현상 유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 범죄통계 분석에 따른 노인 범죄 피해 발생비 추이는 2009년에 최고점을 형성한 후 최근 201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노인 재산범죄 피해, 특히 노인 절도범죄 피해는 근래 2년 동안 소폭 감소 내지 현상 유지 상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노인 사기범죄 피해 발생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고,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발생비로 볼 때, 2009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즉 공식 범죄통계상으로 노인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피해는 각각 2009년 이후 감소했거나 현상유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사기 피해경험률 조사결

과는 더욱 긍정적인데, 2011년과 2014년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피해 경험율은 주목할 만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 두가지 분석자료에 근거해서 최근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적어도 심각해지는 단계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선되고 있거나 적어도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노인 범죄피해경험률 조사결과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노인 사기범죄 피해경험률은 지난 3년 사이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근래 노인 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의 집중적 단속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노인 가구형태별로 볼 때, 사기성 물건 구매 피해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하는 노인독거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을 요구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 달리 사기성 물건 판매 범죄자들은 소득이 낮은 노인독거가구를 구별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요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찍이 독거노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노인 독거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차원에서의 독거노인 보호활동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된 노인사기범죄 피해경험률 비교분석과 지난 3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기범죄 피해 사건 분석을 통하여 노인 사기범죄 피해의 가해자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가구형태별, 사기범죄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경찰의 노인 사기범죄 피해 예방대책은 객관적 통계자료와 범죄피해 관련 지표, 가해자 피해자의 성, 연령, 지역, 가구형태별 특성에 대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맞춤형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끝>

## 참고문헌

- 강지현·김지선·김한균·박형민·안성훈·이원상·최수형·홍영오,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2.
- 곽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 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유홍준·정태인, 한국노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제 43권 제1호, 2011.
- 이건중·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영란,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2011.
-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77, 2009.
-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8.
- 조성호,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 피해경험 및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5(2), 2008.
- 최인섭·이순래·조균석,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 허경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2호,

2006.

황지태·노성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70~2040)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국내 일간신문, 방송통신, 경제신문, 인터넷 신문, 지역지, 매거진, 전문지(2013.1~2015.9)

Daniel P. Mears, Michael D. Reisig, Samuel Scaggs, and Kristy Holtfreter, Efforts to Reduce Consumer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The Effect of Information Access on Program Awareness and Contact, *Crime and Delinquency*, 1-25, 2014.

Felson, M., & Boba, R. L., *Crime and everyday Life*, Thousand Oaks, CA:SAGE. 2010.

Kelly D. Johnson, *Financial Crimes Against the Elderly*,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No.20,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Kristy Holtfreter, Michael D. Reisig, Daniel P. Mears, Scott E. Wolfe,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in a Consumer Contex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Lawrence E. Cohen and Marcus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No. 4 (Aug., 1979).

책임연구보고서 2015-06

## 노인 사기범죄 피해 분석과 대응방안

---

---

2016년 9월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